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지난달 30일 스페인의 세비야 중심가에 자리한 '엘 팔라치오 안달루스' 공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매일 저녁 7시30분 열리는 스페인의 전통공연 플라멩고(Flamenco Tablao)를 관람하기 위해서다. 공연 30분 전부터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낸 관광버스는 개막 시간이 다가오자 수 십 여대로 늘어났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화려한 의상의 남녀 무용수와 가수들이 등장해 극장의 적막을 깨뜨렸다. 치렁치렁한 주름 치마를 입은 집사가 애절한 기타 선율과 노래에 맞춰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수백 년 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던 집사들의 한이 서린 춤사위는 5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글로벌 관객 '홀리는' 플라멩고

'스페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플라멩고를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슬람과 스페인 문화가 어우러진 '스페인광장'이 세비야의 심장이라면 플라멩고는 세비야의 핏줄이라는 것이다. 낮에는 스페인광장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 보고 밤에는 플라멩고를 '직관'하면 길을 나서 다니다 보면 진주나 삼척, 당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 황당하기 일쑤였는데, 요즘 교과과정엔 지리시간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서야 아차 싶었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면 국내지도라도 펼쳐놓고 여기가 진주, 저 곳이 당진이라고 짚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은폐칼럼



육영석 농협식품 전무이사

주말에 포천과 철원 한탄강 유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월기왕성하던 20대 중반 이산 저 산 누비고 다녔던 군 생활을 하던 곳이라, 갈 때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들뜬엔 벌써 벼를 베지 오래라, 멀리서 보면 벼 밀밭에서 난 싹이, 마치 옛그제 모내기를 마친 눈으로 보인다. 절없는 아이는 모내기 다시 할 것 없이 그대로 두었다가 벼가 익으면 수확할 수도 있겠다는데 이럴 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다 아이들과 길을 나서 다니다 보면 진주나 삼척, 당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 황당하기 일쑤였는데, 요즘 교과과정엔 지리시간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서야 아차 싶었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면 국내지도라도 펼쳐놓고 여기가 진주, 저 곳이 당진이라고 짚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쌀도 마찬가지로. 큰 애 대학 신입생때 농활을 간다고 해서 대전해 했고, 천원의 아침밥 먹기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 애비 마음 좀 알아주는가 싶더니, 정작 줄

'배너들의 축제' (?)가 된 문화광주

이날 1시간 30분의 무대가 끝나자 공연장 주변은 관객들을 숙소로 실어 나르는 수 십 여대의 버스 행렬로 또 한번 장관을 연출했다. 그 순간, 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에서 봤던 풍경을 스쳐 지나갔다.

베이징 관광객의 필수코스라 불리는 '금면왕조'(金面王朝)는 중국 고대 신화의 낭만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룬 가무쇼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총지휘한 장에도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두 차례 열리는 공연에 수천 여명이 다녀갈 정도다. 사실 스토리는 평범하다. 금빛가면을 쓴 여왕이 다스리는 여인천하(금면왕국)에 어느 날, 남자들이 사는 남면왕국이 쳐들어온다. 치열한 싸움 끝에 금면왕국이 승리를 거두고, 남면왕국의 왕은 포로신세가 된다. 이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시기한 하늘의 저주로 대홍수를 겪게 되면서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다. 하지만 여왕이 자신의 몸을 던져 왕국을 구한 후 태양조(太陽鳥)로 부활해 금면왕국을 지켜내는 해피엔딩으로 막이 내린다.

뽀뽀뽀해도 금면왕조의 하이라이트는 모세의 기적과 맞먹는 일명 홍수선(scene)이다. 극의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무대 위에서 500여 톤의 물이 실제로 휘말리지는 장면은 객석을 압도한다.

며칠 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술장터 '아트:광주:24' (10월10~13일)를 둘러보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시선을 잡아 끈 '주인공' (?)이 있었다. '2024 광주김치축제', '장흥대한국 통합의학박람회', '2024 광주비엔날레' '아트:광주:24' 등의 문화이벤트와 발라드, 밴드, 트로트 등 대중가수들의 광주콘서트를 홍보하는 배너 광고들이었다. 동안 푸른 기를 하늘 아래 펼쳐이는 수 십 여개의 배너들은 '축제의 계절'이 도래했음을 실감케 했다.

그중에서도 막강한 팬들을 자랑하는 대형가수들의

콘서트 배너들이 눈에 많이 띄어 가슴이 설레었다. 개막 두 달째를 앞두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 파빌리온 전시장(광주시립미술관, 양림동) 등 지역의 문화현장이 전국에서 온 수천 명의 팬들로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1회 평균 4000~5000여 명의 관객 동원력을 뽐내는 가수들의 팬들이 콘서트도 보고 다른 광주의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엔날레 특수 못살린 예술관광도시

그런데 웹젠, 호기심에 X(엑 트위터)나 팬카페, 커뮤니티 등을 둘러보니 '축제 특수'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유감스럽게도 비엔날레나 ACC 등과 관련된 검색어나 정보 대신 맛집이나 답양, 장성 등 인근에 가볼만한 명소들을 추천해달라는 글이 많았다. 특히 올해는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30주년을 맞은 특별한 해인데도 외지인들의 '방문 리스트'에서는 찾기가 힘들었다. 현대미술축제에 관심이 없는, 팬들의 취향 탓이라고 '위안'을 삼기에는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하는 광주비엔날레의 명성을 무색케 했다.

이런 마음을 눈치라도 챜드 아트광주에서 만난 50대 부부의 쓴소리가 가슴에 와 박혔다. 비엔날레와 아트광주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일부러 왔다는 이들은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가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어서 저녁에 판소리나 국악무대가 있으면 관람하고 다음날 여수로 갈 계획이었는데 마땅한 공연이 없다"면서 "비엔날레 기간만이라도 외지인들을 위해 광주의 전통예술인 판소리공연을 기획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분 탓일까. 전시장을 나오는 길, 어두운 거리에 내걸린 화려한 디자인의 'G-페스타 광주' (지역 축제·행사 통합 브랜드) 배너가 웬지 쓸쓸해 보였다. 마치 문화도시의 민낯을 들킨 것 마냥.

쌀소비를 늘리려면

업해서는 정오가 다 되도록 잠만 자기 일쑤다. 일부러 깨워 아침 먹고 자라고 해보지만 잠에 취한 깔깔한 혀에 쌀밥이 들어갈 리 없다.

쌀소비가 줄어 걱정거리가 되니 오래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의하면 2023년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56.4kg으로 1993년 110.2kg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육류소비량은 2000년 31.3kg이었으나 지난해엔 쌀소비량보다 많은 60.6kg으로 증가했다. 쌀과 잡곡 등을 포함하는 1인당 양곡소비량은 10년 전인 2014년 73.8kg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64.6kg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밀가루, 잡곡, 두류와 서류를 포함한 기타양곡 소비량은 10년 전 8.7kg, 2023년엔 8.2kg이니 의아스럽게도 500g만 줄어든 셈이다. 이는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쌀은 크게 줄고 있지만 기타 양곡은 거의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주식인 쌀은 남아돌고 밀, 콩, 옥수수는 해마다 수백 만 톤을 수입해야 하는 불균형의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서구화된 우리 입맛은 이미 쌀보다는 빵, 라면과 국수 등 밀가루 음식을 선호하고, 이것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가공용 쌀인데, 가루쌀(粉糈米)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가루쌀은 다른 품종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도 수확직 후 곧바로 빵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데 밀과 성질이 유사해 빵, 과자, 면, 튀김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재배방식도 일반 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생

산농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앞다퉈 신청한 올해 2000ha의 논에 38개의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다.

가루쌀을 활용한 상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식빵, 카스테라, 케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빵은 물론 쌀국수, 파이나 스프링, 식물성 음료, 부침가루와 튀김가루 등등. 이 것들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밀가루보다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된다는 평이 주류였다. 다만 최근에는 가루쌀이 일반 벼에 비해 수확량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낮거나 수입 밀가루보다 높은 가격, 글루텐이 없어 가루쌀만으로는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속적인 품종개량과 가공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수출을 한다거나 쌀시장확대 측면에서 보면 애기가 달라지겠지만 즉석밥은 밥솥에 밥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줄여주는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어차피 먹어야 할 밥의 대체제인 만큼 쌀소비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늦은 밤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쌀국수를 먹어본 분이라면 기대 이상의 맛도 맛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속이 개운한지 느껴보았을 것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상품도 있지만, 1인당 연간소비량이 77개나 된다는 라면에 쌀을 첨가하고 관능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식이 아닌 간식이나 기호식품으로서의 떡과 음료, 국수와 빵, 주류와 장류, 과자류 등 상품개발을 확대해야 쌀소비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기고

생명나눔 50년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다가오는 10월 17일은 우리 혈액원이 개원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958년 국립혈액원을 인수했다. 당시 헌혈은 매월이 주를 이루었으나 1960년 4·19혁명 그 가운데 62명의 시민에 의해 최초의 자발적 헌혈이 등장했다. 이후 매월과 자발적 헌혈을 병행하다가 1974년 대한적십자사는 매월을 중지부 찍고 순수 자발적 헌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즉시 부산, 인천, 춘천, 대구, 전주, 대전, 광주 총 7개 지역에 혈액원이 만들어졌으며 이때 우리 혈액원도 광주적십자병원 부설로 개원하였다.

광주·전남혈액원은 1974년 헌혈자 1명에서 시작하여 2001년 25만 명을 최고의 실적으로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헌혈자는 19만 명 내외로 지금까지

앞으로의 50년도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수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헌혈 인프라 개선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순천센터와 빛고을센터, 2026년에는 전대용봉센터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1986년 개원한 우리 혈액원은 2026년 이전 및 신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지역과 밀착하여 시·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올해 하절기에 시도한 '31일간의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언론사,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는 '100일간의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에선 한계이지만 정책적으로 헌혈에 따른 고등학생 교외 봉사활동 인정,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 교육시간 면제, 공공시설 이용 확대, 헌혈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개원 50주년을 맞는 우리 혈액원 직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미션 아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주시 헌혈자, 헌혈 협조기관, 의료기관 등에 감사하며 우리 사회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社說

목포대·순천대 통합 통 큰 결정에 박수보낸다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결정했다. 두 개밖에 없는 전남의 국립대학 통합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도 최근 국립 의대 유치를 두고 빚어졌던 두 대학은 물론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갈등 봉합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당장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어디에 설립할지 결정만 해오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터라 곧바로 실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한 지방 두 가족이라는 느슨한 통합일지라도 의대 유치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 캠퍼스에 두면, 분산하던 그것은 차후 문제다. 두 대학은 2011년에도 역대 유지 경쟁을 벌인 전력이 있는데 이번 통합 선언으로 이런 갈등이 빚어질 일이 없어졌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놓여 있는데 통합을 통해

캠퍼스별 특성화를 이룬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두 대학 모두 글로벌 대학에 선정됐는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들에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 지원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게 됐다. 대학 경쟁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점도 통합이 주는 효과다.

어렵게 통합을 선언한 두 대학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통합 선언만 한 것도 통 큰 결정이다. 두 대학이 밝힌 것처럼 시작은 학부와 학과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느슨한 통합이 되겠지만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털어내는 혁신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연착륙을 위해 꼼꼼하고 촘촘한 실무 협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으로 거듭 나 지역민들의 소망대로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길 기대한다.

공영주차장 장기 '알박기 주차' 강력 단속해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어렵게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암체 주차자들의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이 마련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은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이 마련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은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이 마련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은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이 마련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은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無等鼓

무화과는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 중 하나다. 세계사의 유명한 미인들이 아름다운 유지를 위해 먹은 음식으로 유명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 조금은 낯선 과일이다. 18세기에 청나라를 방문한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무화과를 본 후 '열하일기'에 '꽃이 피지 않고도 열매를 맺는 이상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라고 썼는데 이것이 무화과에 대한 첫 기록일 정도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옛 조리서에선 무화과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반도에도 오래전부터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무화과가 자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철이 짧은 데다 과육이 무르고 상하기 쉬워 다른 지역까지 유통되기 어려웠으므로 상품화하지 못해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것도 일제강점기 무렵이다.

꽃이 피지 않는 과실이라고 하여 무화과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과실 안에서 꽃이 피어낸다. 이는 암술한 시대를 살아내는 자신을 꽃 없는 열매에 비유한 김지하의 시 '무화과'에서도 언급된

다. 시인은 "이봐/내겐 꽃이절이 없었어/꽃 없이 열매 맺는 게/그게 무화과 아닌가(1986년 작 '무화과' 중)"라고 썼다.

무화과는 반으로 갈랐을 때 하얀 실드래처럼 보이며, 입에 넣었을 때 톡톡 씹히는 식감을 내는 부위가 꽃이다. 무화과와 공생하는 말벌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 수정하며, 수정이 되지 않더라도 열매 자체는 성장할 수 있다. 수정으로 번식하는 무화과가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화과는 이제 보존기술과 유통망이 발달해 전국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영암군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제작물로 무화과를 재배한 무화과의 시배지이다.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에 달하는 5400t을 생산하고 있는 '무화과의 고장'으로 지난 2015년에는 '무화과 특구'로 지정됐다.

최근 목포에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 음식문화큰잔치'에서 영암 무화과 피자가 '남도 1호 피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피자는 11월에 전국 대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대박'을 기대해 본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donations.